

윤대통령이 묘역 찾은 열사 3명은 고교생·행불자·시민군

“조국이 날 불러요” 학생 전영진 도청앞 총맞고 행불뒤 찾은 김재영 최후항전 뒤 체포돼 구금 정운식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정부기념식이 끝난 뒤 윤석열 대통령이 둘러본 전영진, 김재영, 정운식 3명의 열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18일 기념식을 마치고 5·18민주화운동 3개의 공법단체장과 보훈처장, 국립5·18민주묘지소장, 유가족 안내를 받으며 열사들의 묘소를 참배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바로 돌아가지 않고 유영봉안소를 추가로 둘러봤다.

윤 대통령이 첫 번째로 들린 전영진(18·1980년 당시 대동고 3학년) 열사는 ‘조국이 나를 부른다’의 주인공으로도 유명하다.

1980년 5월 20일 전 열사는 신군부의 휴교령으로 학교를 가지 않는 대신 공부를 하기 위해 책방에 문제집을 사러 나갔다가 5·18에 휘말렸다. 길에서 마주친 계엄군이 다짜고짜 전 열사를 붙들고 구타를 했기 때문이다. 그는 놀란 마음에 집으로 돌아왔으나, 분이 쉽게 풀리지 않아 시위에 참가하려 했지만 모친의 완강한 반대로 20일 하루를 집에서 보냈다고 한다.

다음날인 21일 일찍 밥을 먹은 그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조국이 나를 부른다”며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옛 전남도청으로 향했다가 계엄군이 쏜 총에 의해 숨졌다.

뒤늦게 아들을 찾아 나선 전 열사의 모친 김순희 씨와 아버지 전계량씨는 사망소식을 듣고 광주 시내 병원을 뒤졌으나 찾을 수 없었다. 다음날이 돼서

야 전 열사가 기독교병원 영안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전 열사의 부친은 아들의 죽음을 규명하고 광주시민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유족회 회장직을 맡는 등 투쟁에 앞장섰다.

윤 대통령이 두 번째로 발길을 옮긴 곳은 김재영 열사(17)의 묘역이었다.

김 열사는 42년 동안 행방불명자였다가, 지난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이름 없이 묻혀있던 무명열사가 김 열사인 것을 확인했다.

김 열사는 행방불명자 명부에 고아로 표기돼 있어 그동안 유전자정보가 없었지만, 조사위에서 여동생을 찾아 유전자를 채취하면서 신원이 밝혀졌다. 구두담이를 하던 그는 1980년 5월 21일 옛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의 집단 발포에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들린 곳은 정운식 열사 묘역이다.

정 열사는 1980년 5월 26일 오후 6시경부터 옛 전남도청 정문 보초를 서다가 유혈진압에 나선 계엄군에 체포돼 구금됐다.

정 열사는 옛 전남도청에서 항쟁을 하고 있던 친구의 권유로 마지막 날까지 전남도청을 지키다 체포됐다. 구금 102일 만인 같은 해 9월 5일 석방됐으나, 고문의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만 22세 나이로 숨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유영봉안소를 둘러 봉안소 내부도 둘러봤다.

묘역 참배 후 바로 이동을 하지 않고 봉안소 내부를 꼼꼼히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유영봉안소는 5·18묘역에 안장된 유공자들의 영정을 모신 곳으로 외부 묘형은 우리나라 전통고분인 고인돌 형태를 응용한 참배시설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끝난 뒤, 전영진 열사 묘지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與, 5·18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앞장서야” 윤석열 “오월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입니다”

정의당 추도사…“윤 대통령, 헌법전문 수록 구체 계획 내놓아라”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인 18일 “보수정당 내 망언들은 해를 지날 때마다 거듭돼왔다”며 여권을 작심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북구 망월동 구묘역 봉안당에서 추도사를 통해 “여당은 ‘극우 망언’에 장단 맞춘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중징계를 선언했지만, 중징계 이후에도 ‘꿈수 복당’·정치 복귀·조삼모사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여당이 ‘5·18 정신’ 계승과 국민 통합을 원한다면 망언을 숨기고 발뺌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광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앞장서야 한다”며 “학살 주범 전두환에 대한 역사적 단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열린 현장상무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의 구체적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며 “앞에서는 헌법정신을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망언 정치인이 활개 치는 이 정부에 대

해 광주 시민과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월 정신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이 정부와 여당에 준동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이들에게 끌려다니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오월 정신에 먹칠을 하고 있다. 깊이 반성하고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를 주장해 ‘당원권 1년 정지’ 상태인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등을 예들러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최근 ‘돈 봉투 사건’과 ‘코인 사태’ 등으로 논란을 겪은 더불어민주당도 비판했다.

그는 “민주 세력을 자처하는 사람들 안에서 돈 봉투와 투기가 넘쳐난다”며 “민주주의를 스스로 가로막으며 기득권화되어가는 ‘소위 민주개혁 세력’의 모습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 역대 대통령, 방명록 메시지는

김대중 “민주주의는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노무현 ‘강물처럼’…이명박·박근혜, 재임중 안남겨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방명록에 가장 많은 글을 남겼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43주년 기념식 참석에 앞서 묘지 방명록에 ‘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입니다’라고 남겼다.

지난해 기념식에서는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통합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담았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시절인 지난해 2월에는 ‘5월 정신 이어받아 자유민주주의 지키겠습니다’라고 남겼고, 2021년 11월에는 ‘민주와 인권의 오월

정신 반드시 세우겠습니다’고 기록했다.

후보시절 이전인 2021년 7월 5·18묘지를 방문해선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피로써 지킨 5·18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을 이뤄내겠습니다’고 적어 총 5차례의 방명록을 남겼다.

윤 대통령 전에 가장 많이 방명록에 글을 남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퇴임 후, 지난 17일 방문 당시 ‘5·18 민주정신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고 적었다. 이전에는 2017년 기념식에 참가하면서 ‘가슴에 새겨온 역사, 헌법에 새겨 계승하겠습니다’라며 오월 정신 계승을 다짐했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시절인 2017년 4월에는 ‘광주 정신

을 헌법에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라는 글을 써 모두 3번 방명록에 글을 남겼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기념식에 참석은 했지만 이때는 방명록을 남기지 않았으며, 17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07년 10월 ‘반드시 경제 살리고, 사회통합 이루어 님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살려서, 크게 보답하겠습니다’라고 적었고, 대선 후보로 확정되기 전인 2007년 5월에는 ‘5·18민주화운동이 미래 대한민국 화합과 번영의 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고 썼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33주년 5·18기념식에 참석했지만 단 한번도 방명록을 쓰지 않았다.

고(故)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모두 퇴임 후 묘지를 방문해 방명록을 남겼다.

김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강물처럼’이라는 글을 썼다.

김영삼 대통령은 재임중인 2006년 5월 묘지를 방문해 방명록에 ‘眞實·自由·正義 (진실·자유·정의)’라고 기록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 건물 리모델링
- 칼라강판 지붕공사
-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 전원주택신축
- 공장신축
- 징크판넬시공
- 창호(샷시)교체
- 농막
-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 북구 자미로45(신안동) / 공장: 광주 서구 서향2길3(서향동)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율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짝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